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2017년 2월 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. 31. 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
담당과장	이경식 과장(044-203-5620)	담 당 자	신현우 사무관(044-203-5623)

민간 싱크탱크와 통상환경 변화에 공동대응 강화키로

- 산업부, 제2차 통상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신통상로드맵 등 정책방향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17. 2. 1. (수) '**제2차 통상정책포럼**(우태희 2차관 주재)'을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'신(新)통상로드맵' 보완 등 **통상정책 방향**에 대해 **민간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**하기 위해 열렸다.

< 2017년 제2차 통상정책포럼 개요 >

▷ **일시 및 장소**: '17.2.1(수) 07:30-09:00, 그랜드인터컨 H 2층 로터스룸

▷ **참석자**: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(주재)·통상정책국장 등, 삼성경제연구소·엘지(LG)경제연구원·현대경제연구원·포스코경영연구원·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등 민간싱크탱크 전문가

▷ **안건**: "新통상 로드맵 보완 계획"(산업부), "민관 통상 공동대응 강화 방안"(무역협회)

□ 우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**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**하여 우리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**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**"이라고 말하고,

○ 지난 '13. 6월에 수립한 신**통상로드맵**이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**했다.

□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들도 미국 새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등 최근의 주요 통상환경 **변화를 예의 주시**하고 있다고 밝히고,

○ 정부가 신통상로드맵 보완을 통해서 **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**함으로써 **수출과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**해 줄 것을 건의했다.

□ 이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**민관 통상 공동대응 강화 방안**을 발표했다.

○ 발표자로 나선 신승관 원장은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**통상조직 강화가 필요**하고

○ 특정 사안 발생 이전에 통상 문제 가능성에 **사전적으로 대비**할 수 있도록 **민간의 현지 네트워크와 공관이 협력하는 등 공동대응이 중요**하다고 건의했다.

□ 참석자들은 민관이 **해외 통상정책 변화 움직임 및 대응방향**에 대한 **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**하고

○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**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**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이에 산업부는 민간 두뇌집단(싱크 탱크) 전문가와 **간담회 등 정기적 만남을 열어 정보공유, 민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**하는 한편,

○ 민간의 **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**를 **현지 상무관 등 정부와 적극 공유**하고 **자체 통상조직 강화**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.

□ 마지막으로 우 차관은 "올해는 작년 4분기 힘들게 되살린 **수출 증가세를 유지, 가속화하는 한 해**가 되어야 할 것"이라고 강조하며,

○ **산업과 통상의 연계**가 한층 더 강화되어 **수출환경이 개선**할 수 있도록 **민간 경제연구소들이 함께 노력**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신현우 사무관 (☎044-203-56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2-01 10:20:19